

영산강 사업 지역발전 호기 조기 집중투자가 성공 관건

권오현 산업건설研 위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영산강 정비사업이 호남 경제권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기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효과를 높이고 유능한 지역 업체들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선

알림

제35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7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6동 7층 강당
이여일 교수 ‘건강한 여성을 위하여’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 제35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건강한 여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이여일 교수로, 성인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부인암, 불임 및 습관성 유산, 폐경 및 간기기 장애에 대해 설명과 상담을 해줄 것입니다.

강좌의 내용은 오는 30일(월요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 주 제 : 건강한 여성을 위하여
- 강 사 : 이여일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 일본 동경대 불임학 연수
- 미국 일리노이대학 부인과 내분비학 연수
- 호남 최초 시험관 아기 임신 및 출산
- 호남 최초 불임 및 폐경 클리닉 개설

- 일 시 : 3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6동 7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전망했다.

권 위원은 24일 미리 배포한 ‘4대강 살리기사업의 추진 배경과 영산강 프로젝트의 과급효과’라는 주제 발표 자료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세미나에 앞서 자료를 배포하고 이 사업에 따라 2만3천5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조1천억원의 부가 가치 유발효과, 5천700억원의 임금소득 유발 효과, 2조5천8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권 이외 지역에서도 7천200억 원의 간접 생산을 유발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기대효과가 2조5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권 위원은 또 “1조3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데 따라 호남권에만 1만2천200명 등 전국적으로 2만3천5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비롯, 1조1천100억원의 부가 가치 유발효과, 5천700억원의 임금 소득 유발효과도 거둘 수 있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은 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 조기 집중 투자 ▲ 지역 업체 참여 기회 제고 ▲ 영산강 사업과 연계한 신규 투자 방안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 위원회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수질 개선 및 하천 복원을 비롯,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국토 서남권의 신성장 거점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기 기자 dok2000@



‘아름다운 도전 19일’ 야구 있어 행복했다



아쉬운 준우승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결승에서 일본에 패해 준우승 한 한국팀 선수

/연합뉴스

2009년 3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구에서 새로운 희망의 쪽을 보았다.

‘위대한 도전’으로 불리웠던 24일 일본과의 ‘2009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이 한국 대표팀의 3-5 석패로 막을 내렸지만 국민들은 대회 내내 힘찬 기상을 보여준 대표팀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

국민들은 대표팀이 메이저리거가 즐비한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세계적인 강호들을 차례로 꺾고 세계 야구무대의 정상권으로 우뚝 서자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다.

이번 대회에 출전 팀 가운데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약체로 평가받았던

세계를 감동시킨 불굴의 투혼 국민에 용기·희망·즐거움 줘

던 한국의 준우승은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로 세계인의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베네수엘라와의 지난 22일 한판 승부는 한국 야구의 위상을 세계 야구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이 무려 22명의 메이저리거로 구성된 베네수엘라를 10-2로 압도하자,

그때까지도 한국 야구가 ‘스몰볼’로 평가질하했던 세계 스포츠계는 한

국 야구를 칭찬하느라 입이 말랐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세계 정상권에 올라선 스스로의 위상에 희열을 느꼈다. 3년전 1회 WBC 대회 때 한국 야구는 가능성과 저력을 힘으로 평가됐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쿠바, 일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야구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피발리는 연장혈투가 펼쳐진 속적 일본과의 결승전에서도 대표팀이 끝까지 굽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

는 모습에 국민들의 감동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비록 승부에서는 밀렸지만 10회까지 사투를 벌인 선수들의 표정 하나 하나에서 국민들은 어떠한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국민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희망’의 즐거움을 보았다. 고교팀이 55개에 불과한 한국이 고교팀 수가 4천100여개가 넘는 일본팀의 간답을 서늘하게 한 장면에서 간절하게 바라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를 새길 확인했다.

3월의 봄, 우리는 야구가 있어 무척이나 행복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전 본사 나주 이전 4월부터 본격 추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중추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의 본사 이전 작업이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한전 김문덕 부사장은 24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 의원모임(대표 최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전 지방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한전은 올해 ▲본사 사옥 신축 설계비(50억원) ▲본사이전 부지매수

(169억원) ▲본사 주거시설 등 업무 지원시설 부지매수(52억원) 등 총 2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중 본사 사옥 설계공모에 이어 하반기 중 사옥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한전은 토지공급사인 광주시도시공사와 토지조성원이 인하 등 부지매입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코스피 1,220 돌파

미국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지수가 1,200선에 안착했고 원·달러 환율도 이를 허락해 1천380원대에 머물렀다.

24일 종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2.20포인트(1.85%) 상승한 1,221.70으로 마감했다. 지난 1월7일 연고점인 1,228.17을 기록한 이후 두 달 보름 만에 1,220선을 뛰어넘었다.

코스닥지수도 3.16포인트(0.77%) 오른 412.39로 장을 마쳐 410선을 회복했다. /증권기자 jkpark@kwangju.co.kr

/증권기자 bungy@

90% 빌딩 완공
한국은행 금융권
상무지구 최고의 중심 상권!
22층 최고의 동양빌딩!
병원, 상가 잔여분 선택순 입대
동양건설 (02) 385-7777, 373-5990